

# 어둠과 광기의 시대. 감금의 상상력과 특유의 통찰로 독자 사로잡아

모든 감금된 자는 '감시'와 '통제'를 받기 마련이다. 특정한 존재를 분명한 구속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감시'와 '통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하고 상상력을 봉쇄한다. 감금된 자는 이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해방의 상상력을 불러낸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감금의 상상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감금된 자는 '감시'와 '통제'를 받기 마련이다. 특정한 존재를 분명한 구속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감시'와 '통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하고 상상력을 봉쇄한다. 감금된 자는 이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해방의 상상력을 불러낸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감금의 상상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푸코에 의하면 광인, 이를테면 감금된 자의 지혜가 예견하는 것은 금지된 지식이다. 감금된 자는 금지된 지식을 상상력으로 간파하면서 삶과 존재에 대한 특유의 선지적 통찰을 이끌어낸다.

우리는 감금의 상상력을 통해 주옥같은 저작을 남긴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성애문학의 신화적 인물인 사드 백작, 미치광이 시인으로 알려진 월터 린, 《옥중기》를 남긴 오스카 와일드, 그리고 본명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인 오헨리, 도스토예프스키와 장주네 등이 모두 감옥과 정신병원 등에 수용됐던 작가들이다. 이들은 밀실에 갇혀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갈망했던 삶에의 의지와 세계에 대한 통찰로 보석 같은 저작들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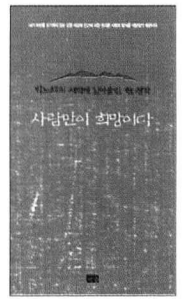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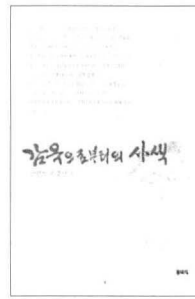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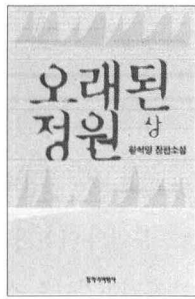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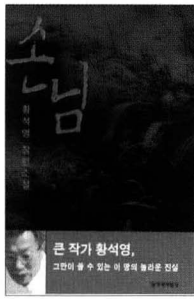
근년 들어 우리 독서계에도 수인 출신 저자들의 저작이 빈번하게 출간돼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비근한 예가 바로 《야생초 편지》의 저자 황대권 씨(48)다. 그는 유학생 신분이던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투옥된다. 기나긴 영어圜圀의 시작이었다. 그는 14년

여의 옥살이를 마치고 1998년 출소해 한 권의 책을 상자하는데 그 책이 바로 그를 일거에 스타급 저자로 만든 《야생초 편지》다. 이 책에는 황 씨가 감옥에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보낸 서간문이 그가 거쳐 간 교도소별로 묶여 있다. 그의 글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눈길을 주지 않았을 이름 없는 풀과 꽃들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담고 있다. 미물들이 곳곳에서 어떤 가치로 빛을 발하며 존재하는지를 성찰하는 그의 글은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에게 깊은 성찰과 감동을 안겼다. 황대권 씨는 책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무릇 정성과 열심은 무언가 부족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만약 내가 온갖 풀이 무성한 수풀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이런 정성과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 열악한 생활환경에서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

이 책은 특히 모 방송사의 독서캠페인 선정도서에 뽑혀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한때 반국가 행위를 했다는 죄목으로 수감됐던 수인의 책이 공익성을 기본으로 하는 공중파 방송에 의해 전국민에게 홍보됐다는 사실은 역사의 지독한 아이러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인의 서간문을 모아놓은 책으로는 신영복 교수(63, 성공



회대학교)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원조적이다. 신영복 교수 역시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영어의 몸이 된 이후 꼬박 20년 20일을 철창 안에서 살아야 했다. 죄 없는 자를 가두는 어둠과 광기의 시대, 그는 철창 안에서 참혹한 세월을 묵묵히 견디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깊은 성찰과 사유로 터득한 통찰과 지혜가 담긴 봉합엽서를 보낸다. 그의 글은 책으로 출간된 이후 삶의 가치, 생명과 이웃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주면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그의 글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울려나오는 평화의 메시지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깨우침을 안겼다.

얼굴 없는 시인으로 널리 알려졌던 박노해 시인(45) 역시 대표적인 수인 출신 저자다. 그는 사노맹 사건의 주동자로 15년간 수배생활을 하다 체포돼 만 7년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기까지 그는 옥중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념을 성찰하는 동시에 삶에 대한 사유를 더욱 내면화하는 작업을 했다. 그가 아직 투옥중이던 1997년 옥중에서 깊은 침사沈思를 통해 틈틈이 길어 올린 글이 책으로 묶여 나왔는데 그 책이 바로 해남에서 나온 《사람만이 희망이다》다. 책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니 비참하고 비참하지만 나를 알아가니 나로 미루어 당신을, 인간을, 사회를 비로소 알 듯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니, 아, 희망입니다 눈물어린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를 바로 보는 데서 희망은 시작됩니다.” 그가 ‘사람만이 희망이다’는 깨달음을 얻는 데는 7년이라는 혹독한 내성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투사와 전사라는 강성 시인의 이미지를 상당 부분 해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얼마 전 동아일보가 실시한 설문에서 우리 시대 최고의 소설가로 꼽힌 바 있는 황석영 씨(60) 역시 영어를 경험했던 작가다. 그는 1989년 제3국을 통해 밀입북했다가 4년여의 망명생활

을 한 후 1993년 구속수감이 예정된 조국으로 돌아와 자발적으로 수인이 되었다. 그는 5년 여의 수감생활 동안 작품 구상과 창작의 열정을 잘 갈무리해서 출소하자마자 봇물처럼 두 권의 작품을 쓰게 되는데 《오래된 정원》과 《손님》이 그것이다. 《오래된 정원》은 1980년대 이후 격동적인 한국사회와 몰락하는 사회주의권을 배경으로 하여 젊은 두 남녀의 극적인 삶과 사랑을 특유의 입담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으로 거대한 이념의 집합소였던 20세기를 반성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손님》역시 형제간에 얽힌 아픈 과거를 소재로 한국전쟁과 남북현대사로 이어져온 민족의 한과 상처를 작가 특유의 리얼리즘으로 어루만지며 화해와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작품이다. 두 작품은 황석영 후기문학의 정점으로 평가받으면서 많은 문학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남민전 사건으로 9년 3개월의 시간을 차디찬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고故 김남주 시인 역시 밀실의 고독과 공포를 뚫으면서 빛나는 시어를 길어 올렸던 대표적인 수인 출신 시인이다. 그는 수감 기간 중에만 세 권의 시집, 《진혼가》《나의 칼, 나의 피》《조국은 하나다》를 출간했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옥중에서 쓴 서한을 묶어 《산이라면 넘어주고 강이라면 건너주고》를 펴냈다. 그가 옥중에서 쓴 시들은 말 그대로 어두운 시대를 뚫는 뜨거운 전위의 구호로 많은 문청들에게 암송됐다.

이들 수인 출신 저자에게 있어 영어는 세상과 삶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각성하는 산고의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광인은 어둠과 광기의 시대가 만든다. 광인은 역사와 시대에 대해 가장 침예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자유를 박탈당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길어 올린 사색과 성찰의 기록은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는 봉화의 불빛에 다름 아니다. 또한 그것은 자신들의 시대가 가장 치열했음을 증언하는 첨단 육성이라 할 수 있다. **한**

취재 김도연 기자